

인터뷰
interview

선생님과의
인터뷰



Q 오늘 소규모 중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날에 참여한 주산중학교 남궁웅 선생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소규모 중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A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동교육과정은 스마트 기기와 최첨단 기기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영감을 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직 생활 30여년 동안 가장 교육적으로 유익한 행사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너무 멋있었습니다.

Q 선생님께서 가장 의미 있다고 느끼신 프로그램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A 단연 '사물놀이패와 함께하는 대동 놀이'입니다. 우리의 전통놀이인 대동 놀이를 현대 감각에 맞추어 각색하여 부안 학생들이 모처럼 하나 대동단결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과 미소 속에서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Q 오늘 학생들을 위한 축하 공연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A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함께하는 현악 4중주는 교실 밖 체험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과 융합형 진로체험 수업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A 24개의 진로 교육(체험)부스가 운영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애완견 부스, 가족공예 등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아주 유익하고, 진로를 탐색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Q 어름마당인 학생들의 밴드 공연에 대해서 느끼신 점은 무엇일까요?

A 방과 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한 학생들의 밴드 공연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게 큰 울림을 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의 학생들 공연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미래에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Q 스포츠 활동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A 처음 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활동은 영화 '오징어 게임'에서 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판 뒤집기' 활동은 단순한 놀이로만 생각했는데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학생 수와 관련하여 소규모 학교에서 하는 활동과 결이 달라서,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오늘 학생들과 함께 즐겼던 대동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학생들의 밴드 공연은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중학교 공동교육과정이 앞으로 부안의 특색 교육과정으로 매년 운영됐으면 합니다.

공동교육과정 발자취

교과 융합형 진로체험부스에 응답하라!

로봇을 코딩해 보았는데
좋았다. 블록코딩으로
공부한 시간이 충분히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카드지갑 만들기에서
실 꿰미기를 배워 간단한 옷
수선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오쿨러스퀘스트에서 VR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배지 만들기에서 색칠을
했는데 재미있게
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잘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수학 문제랑 움직여서
도착지까지 가는 게임을
했다. 머리가 깨질 뻔
했지만 재미있었다.

로봇을 만들고 직접
움직이기도 해 보았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 재미있었다.

메타버스로 보는 수학 세계는
다양한 활동이 있어서 좋았다.
수학이라고 해서 어려울 줄만
알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임으로
수학을 해서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

평소에 보던 마술 트릭을
실제로 배울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선생님께서 마술을 직접
보여주시며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고, 모르는 부분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좋았다.

진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현실 조언을 해
주셔서 좋았다.

플로리스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꽃을
이쁘게 꽃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여러 개가 합체되는
핑퐁로봇은 웃기고
재미있었다.

자율주행 자동차 엠봇을
조종해 보았는데,
얼굴이 바뀌는 것이
재미있었다.

매견 훈련사가 궁금해서
갔는데 대형견인 베리를
보면서 큰 개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공동교육과정 발자취

어울마당에 응답하라

여러 명에서 하는 활동을
함께 하니깐 재미있었는데
탈락해서 아쉬웠다.

사물놀이를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대동
놀이에서 단심줄 엮기를
할 때 함께 뛰어 다녀서
굉장히 재미있었다.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니 재미있었다.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
또래들과 모여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 다른
학교 학생들의 공연을 봤던 것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

다른 학교 학생들의 공연을
구경하는 것이 좋았고,
서로 서로 알아가는 기회가
된 것 같다.

현악 4중주는 아름다운
연주의 향연이었다. 4개의
악기 소리가 어우러져 나오는
고운 선율로 귀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어릴
때 동심이 살아난 것 같았고
재미있었다.

여러 가지 체육 활동, 공연을
축제나 어린 시절 운동회를
할 때와 같이 정말 재미있는
추억을 쌓았다.

대동놀이를 하면서 강강술래
노래에 맞춰 뛰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했다. 재미있었다.

판 뒤집기를 하면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 협동심이
생겼던 활동이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협동하여 같이 힘을 쓰고
열심히 줄다리를 하였다.
비록 상대에게 졌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에는 좋은 활동이었다.

다들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공연이
완성도가 높았다.

좋은 노래와 좋은 밴드가
만나서 인상깊은 노래를
감상할 수 있었다(핸드폰을
들고 찍었어야 했다).

신선한 재료의 도시락도
맛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어서 맛있게
먹었다.

일곱 소규모 학교들과 함께한
공동교육과정 활동

3학년 서○○



금요일, 우리 중학교를 포함해 일곱 소규모 학교들이 모여 공동교육과정 활동을 하였다.

먼저, 우리는 다양한 직업 체험을 했다. 그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직업상담사에게 진로 상담을 받은 것과 특수 분장사 직업 체험이었다. 진로 상담은 직업상담사 분이 내가 미리 워크넷 사이트에서 검사하여 출력해 온 결과물을 보시고 나의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검사 결과지만 보시고 나의 MBTI 성격 유형도 맞추시는 것이 놀랍고 신기했다. 솔직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고 불안했었다. 그런데 진로 상담을 받으니 뭔가 많은 아니더라도 자신감이 생겼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미술은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취미 아니면 생계를 이어갈 직업을 택하고 부직업으로 삼고 싶었다. 그런데 직업상담사 분이 미술 관련하여 다양한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꿈을 정해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 그래서 '일단 꿈과 공부를 같이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진로 상담을 통해 내 마음이 조금 많이 변하고 도움도 되는 것 같아 좋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 좋았다.

그리고 특수 분장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부스에서는 내가 직접 할 수 없어서 조금 실망했지만, 특수 분장사 분이 내 손가락에 한 특수 분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진짜 내 손가락이 칼에 베어서 피가 나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특수 분장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겼고 특수 분장사 분이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여러 직업 체험을 하고 점심밥을 먹은 후, 여러 학교의 밴드 공연을 보았다. 솔직히 나는 밴드 공연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못하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다들 잘하고 좋은 연주를 해 주어서 듣는 내내 저절로 박수가 쳐지고 흥이 나서,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았다. 보컬, 베이스, 기타, 드럼 등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합쳐서 소리가 나는데 엄청 조화롭고 웅장해서 더욱 더 멋있었다. 이 공연을 위해 여러 날들을 연습해서 준비했을 텐데, 너무나 수고했고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대에 올랐을 때도 많이 떨렸을 텐데 무사히 마쳐서 고맙웠다. 그 열정 때문이었을까 너무나도 좋았다.

오늘 하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더 재미있었다. 여러 가지 직업 체험까지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잘 모르는 학교 학생들이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다. 그래서 이 기회가 다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
소감

02

이긴 것도 좋고 진 것도 좋았던 하루

2학년 김○○

오늘은 내가 많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날이다. 다른 학교 다니는 학원 친구가 소규모 중학교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주었다. 밴드 연주를 하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했다.

스포츠파크에 도착하니, 다른 학교들이 다 모였다. 학원 친구도 만나고 다른 아는 친구도 만나고, 다양한 애들이 다 모여 있어서 들뜨고, 재미있어 보이는 친구들도 많아서 기대되었다. 진로체험부스에서는 설명을 듣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고 체험을 하였다.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체험을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점심 도시락 맛은 매우 만족했다. 과일을 좋아하는데 3가지나 있었고 오랜만에 먹는 유부초밥도 맛있었다. 친구랑 함께 대화를 하며 먹었더니 더 맛있는 느낌도 들었다.

드디어 제일 기다리던 밴드 공연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리허설 모습이 심상치 않았던 라온밴드의 공연은, 보컬이며 드럼이며 합이 좋고 개개인마다 실력도 엄청 좋았다. 이후 다른 학교 밴드팀에서는 남학생이 기타를 치며 노래까지 잘 불렀다. 드디어 우리 학교 밴드 순서가 되었다. 긴장을 한 상태로 무대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피아노 종류가 많아서 소리를 그냥 느낌대로 짚어서 연주했다. 나의 연주가 색으로 비유하면 색들이 보여서 그래데이션처럼 예쁘게 되어야 하는데 뭉치기만 해서 검은색이 된 것처럼 음이 많이 이상하고 피아노 소리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작'이라는 곡을 연주할 때에는, 내 악기 소리도 들려 그나마 만족했는데 '캐논'을 연주할 때에는 소리가 거의 잘 안나서 실망스러웠다. 무대에서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한 곡을 치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해소된 경험도 괜찮았고 재미있었다.

체육 활동도 엄청 재미있었는데, 아는 형들이 나가 참가하는 모습을 보니 재미있었다. 줄다리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예전에 체육 시간에 배웠던 자세를 이번에 적용해 보았다. 아침에 동영상도 찾아보면서 좀 더 자세를 잘 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서 계속 끌어당겼다. 우리 팀들도 잘 해줘서 두 판 모두 이겼다. 다음 판 뒤집기 활동은 아쉽게도 져버렸다. 그런데 줄다리기 이긴 팀과 판 뒤집기 진 팀에게 준 상품이 모두 마음에 든 것이라, 이긴 것도 좋고 진 것도 좋았다.

함께여서 더 즐거웠던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날

2학년 김○○



현악 4중주 '활'이 연주하는 축하 공연으로 소규모 중학교 공동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연주하는 곡 중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OST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지난번에 본 아우름 브라스 밴드와 함께 연주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다.

진로체험 부스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로봇 코딩이었다. 코딩은 거의 10분 만에 끝이 났는데 초음파 센서로 거리가 20이하라면 왼쪽으로 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조종을 했다. 우리는 로봇을 이용하여 물건들을 색깔별로 정리하라는 미션을 받았다. 다른 학생들은 여러 명에서 이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는데, 나는 아예 형과 함께 순식간에 미션을 마쳤다. 정말 재미있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벌써 1부 시간이 끝나다니 진짜 너무 아쉬웠다. 2부에서 체육 활동을 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자신있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멈추는 것은 잘하였지만 가는 것을 잘하지 못해 거의 꼴등이었다. 그래도 옆에 친한 형과 함께여서 심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줄다리기'는 나에게 항상 졌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활동이라서, 혹시나 이번에는 이길까 열심히 당겼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줄이 우리 쪽으로 당겨졌다. 진짜 정말 재미있었다. 세 번째 '판 뒤집기' 활동에서는 무릎도 짊어가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팀이 졌다. 경기 중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집중했으면 이겼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승리한 팀이 받은 상품보다, 져서 받은 상품이 더 마음에 든 과자라서 기분은 좀 나아졌다. 마지막 시간에는 한국의 전통 공연과 놀이를 하였다. 부안용기놀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릇을 막대에 올리고 돌리셨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은 그릇 위에 막대기를 올리고 그 위에 또 그릇을 올려 돌리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용이 그려진 큰 깃발을 들고 공연을 했는데 마치 장발장 같았다. 큰 깃발을 들기 위해 과학적인 원리를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하다 생각했다. 설명 그 원리를 이용한다 한들 무거운 깃발을 휘두르기도 힘들었을텐데 힘차게 휘두르는 모습이 참 인상깊었다.

단심줄놀이는 5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의 천을 함께 잡았다. 12개의 줄을 각각 잡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번갈아 향해 서서 돌았다. 서로 마주칠 때마다 천을 위로 올려 길을 내주거나 올라간 천 아래로 내려가 계속 돌았다. 그러자 기둥에 예쁘게 천이 따여 있었다. 정말 신기했다.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내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학생 수가 적은 것을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오늘 소규모 중학교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소규모 중학교에 있어서 밴드도 해 보고, 임원도 해 본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확실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라서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생
소감

04

기대보다 더 많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1학년 김○○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음 시간에는 학교, 각각 마다 공연을 하는 시간이었다. 다른 학교들도 참여하고 대망의 마지막 학교가 우리 학교 밴드였는데, 무대에 올라가 멋진 연주를 들려주었다. 우리 학교여서 그런가? 다른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잘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사실 다른 학교 연주도 재미있게 들었다.

그 다음 시간은 다른 학교와 모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체육 활동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활동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이다. 일단 남학생들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면 통과였다. 남학생들은 시작하자마자 다 뛰어갔다. 보고 있는 나도 떨렸다. 우리 학교 남학생 대부분은 거의 통과를 했다. 다음에는 여학생들 차례였다. 가까스로 나는 마지막으로 통과해서 상품을 받았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 다음 활동은 '줄다리기'였다. 줄다리기를 하는 줄이 진짜 길었다. 한 팀에 40명이 넘었고 두 팀이 합쳐 90명이 다 되는 것 같았다. 다른 학교들과 섞여서 한 팀을 이루었다. 일단 내가 속해있는 팀은 A팀이다. 다행히 0:2로 우리 팀이 이겼다. 이긴 팀도 상품을 주었고 지는 팀도 상품을 받아서 신기했다.

그 다음 활동은 '판 뒤집기'였다. 상대 팀은 파란색 판으로 뒤집어야 했고 우리 팀은 빨간색 판으로 뒤집어야 한다. 100개가 가까이 있는 판들을 뒤집고 다니는 것이 정말 정신 없었지만 아쉽게도 우리 팀이 졌다.

이번 마지막은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대동놀이 시간이었다. 부안농악 풍물패에서 오셔서 팽과리도 치고 여러 가지 춤도 보여주고, 그릇도 돌리고 재능을 부리는 시간처럼 느꼈다. 단심줄놀이를 하는 시간에는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라고 하셔서 나는 파란색을 골랐다. 알고 보니 가운데 하나의 기둥을 단심이라고 하고 줄을 엮는다고 해서 단심줄놀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전통놀이라고 하는데 신기했다. 어른들이 강강술래라는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실을 엮는다는 느낌으로 서로 엇갈려 빙빙 돌아가면서 실을 엮었다. 신기하게도 기둥에 색색 천들이 예쁘게 엮어진 것을 보니 모두가 열심히 한 결과여서 뿌듯했다.

재미있고, 떨리고 만족스러운 하루

1학년 양○○



12월 9일, 오늘은 소규모 중학교들이 모여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날이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로 이루어진 현악 4중주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진로체험 부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3D펜 체험이다. 눈꽃 모양의 도안을 선택해서 시작했지만 결과는 창작물이 되었다. 옆에서 아는 선배는 3D펜으로 3D펜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생각했다. 나는 눈꽃에 금색을 넣었는데, 선생님께서 럭셔리하게 만들었다는 평을 해 주셨다.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만족스러웠다.

밴드 공연이 끝나고 체육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다. 규칙은 끝까지 가서 무대 위에 있는 선생님 어깨를 터치하는 것이었다. 나는 두 번째로 성공했다. 너무 짜릿하고 재미있었다. 다음은 '줄다리기'를 했다. A팀, B팀이 있었는데 나는 A팀이었다. 두 경기 모두 이겨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다음은 판 뒤집기 경기를 했다. 두 개의 팀을 다시 두 개의 조로 나누어서 경기를 펼쳤다. 나는 A팀의 2조였는데 아쉽게도 우리 팀이 졌다. 정말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상품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체육 활동이 끝나고 풍물놀이를 했다. 부안의 농악 풍물패와 '타무' 30여 명이 소고, 장구, 팽과리, 북, 징, 소고, 태평소 등 여러 가지 전통 악기를 연주하였고, 한쪽에서는 노래를 불렀다. 교과서에서 보았던 악기 연주를 직접 보니 신기하기도 하였다. 상모를 돌리는 상쇠의 모습이 참 좋았다. 제일 힘들고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참고하시는 것 같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부안용기놀이', '기접놀이'가 정말 멋있고 신이 났다. 그릇을 돌리는 부안용기놀이는 멋진 쇼라는 생각을 했고, 용이 그려진, 굉장히 큰 깃발을 들고 공연을 했던 '기접놀이'는 '저런 놀이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보았다. 마지막으로 여기 모인 모든 학교 학생들이 모두 같이 '단심줄놀이'를 했다. 기둥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면서 여러 가지 색을 가진 천들을 엮는 활동이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실제로 해 보니 예쁜 색깔로 잘 엮은 것을 보면서 신기했다. 오늘 재미있고, 떨리고, 만족스러운 하루였다.